지역 부동산시장 아직도 '꽁꽁'

새정부 출범 앞두고 충청·수도권은 활기

집값 하락·미분양 주택 급증 찬바람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지역 등 대부분의 지방 시·도에는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시 남구나 여수시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주택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꽁꽁 얼어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큰 활기를 띠고 있다. 향후 아파트 공급체계가 도심재개발 위주로 바뀌고 지방에 대한 부동산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심리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편리한 교통여건과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올 들어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줄어드는가 하면 기존 아파트값도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광주·전남 등 대부분의 지방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말 현재 미분양주택이 각각 9천429가구, 9천797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는 2만878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은 또 지난해 9월 인터넷 청약제 시행 이후 분양에 나선 5개 아파트가 청약률 '0'를 기록할 만큼 청약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지난해 12월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과 서구 상무 '힐스테이트'의 경쟁률이 각각 3.96대 1, 2.7대 1에 달하면서 '청약시장 양극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주택시장 양극화는 지역별 집값 격차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광주는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에서 벗어났지만 전체 집값은 되레 0.1% 떨어졌다. 남구만 1년새 2.0% 올랐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집값은 '뒷걸음' 했다.

남구는 또 봉선동과 진월동 등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1년간 아파트 전셋값이 5.4%나 뛰었다. 이는 광주의 전셋값 상승률(1.1%)의 다섯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남도 순천의 전셋값이 1년새 4.6%나 올라 전남 전체의 상승률(2.9%)을 크게 웃도는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대거 몰렸다.

특히 여수의 경우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이후 미분양주택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가 하면 한 달새 땅값이 0.9%나 오르는 등 과열현상 마저 빚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최근 수도권 등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과는 달리 광주·전남은 여전히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며 "광주·전남은 특히 미분양 급증과 투자심리 위축 등의 악재가 산재해 있어 시장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中企 해외인증 비용 50~70%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제품시험·인증수수료 등

올해부터 수출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해외인증을 받지 못해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분야는 CE, NRTL, RoHS 등 75개 제품인증과 TS16949, ISO 14001, ISO22000 등 5개 시스템인증이다.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품시험·분석, 인증수수료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품인증의 경우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시스템인증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면 된다. 수출 500만불 초과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위험관리우수 인증기업, 패키지 투어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우선 선정하며, 수출실적·Inno-Biz 기업·벤처기업·경영혁신형 기업·수출기업화사업 참여, 해외시장개척요원 참여,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 회원 등은 우대해 평가한다.

온라인(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출력 후 첨부서류와 함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차사업 신청·접수는 2월15일까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유통업체 설 선물 무료배달 서비스

광주신세계·이마트·롯데백화점 등 접수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16일 각 지역에 배송될 설 선물세트를 점검하느라 분주한 손길을 놀리고 있다. 〈롯데광주점 제공〉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설을 앞두고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 한해 오는 25일부터 2월5일 오후 3시 접수분까지 광주지역 무료배송을 시작한다.

또 24일부터 2월2일까지 일부 신선식품이나 파손 우려상품은 제외하고 전국 무료 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

전남권은 ▲서부권(목포, 무안 함평 영광)은 1월30일, 2월1일, 2월3일 ▲동부권(순천, 여수 광양 여천)은 1월31일, 2월2일, 2월4일로 나눠 하루 전 접수분에 한하여 격일로 배달한다.

또 선물접수는 신세계몰(www.shinsegae.com)을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으며 'bedal.shinsegae.co.kr'이나 '080-222-1588, 080-360-1588'을 통해 배송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마트는 2월1일까지 설 선물세트 전국 무료 배달서비스를 실시, 3만 이상 선물세트 구매시 무료로 배달해준다. 이마트 선물상담 데스크 및 택배접수는 360-0223~4로 문의하면 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25일부터 2월6일까지를 특별 배송기간으로 정해 '신속, 정확, 친절'하게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평상시 신속배송차량 14대와 개인택시와 밴 14대를 추가로 동원, 28대 차량을 풀 가동하는 신속 배송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병·의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광주지방국세청, 312명 관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정민)은 오는 31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에 대한 신고마감을 앞두고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업자 중 병·의원, 입시학원 등 312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병의원·학원·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가 2007년 귀속되는 1년간의 수입금액 등을 1월 2일~31일 동안 신고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전체 신고대상은 2007년 중 영업사실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로 부가세 면세사업자 11만8천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모집인 5만8천명을 제외한 6만명이다. 신고내용은 수입내역, 증빙수취 내역, 비용내역 등이다.

광주국세청은 신고대상 중 의료업 264명, 학원업 42명, 기타 6명 등 312명의 개별관리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술혁신형 中企 경영성과 월등

업체당 영업이익률 일반기업의 두배 수준

중기청 1,595사 실태조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이노비즈(기술혁신형) 기업 1천595개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노비즈 기업의 2006년도 업체당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4%, 17.9% 늘어난 90억5천만원, 4억9천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5.5%로 일반 중소기업(2.8%)의 두 배 수준이었다. 또 기술개발 투자액도 이노비즈 기업은 업체당 평균 4억400만원으로 일반 기업(1억6천700만원)에 크게 앞섰다.

한편 이노비즈 기업은 성장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으로 기술(6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9.4% 늘어난 4천300억원을 기술개발 지원자금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4년 연속 '최고 기내서비스·승무원상'

아시아나항공은 4년 연속 세계적 여행전문잡지 '글로벌 트래블러'로부터 '최고 기내서비스 및 승무원상'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또 미국의 여행잡지인 '비즈니스 트래블러'로부터도 2년 연속 '세계 최고 기내서비스 및 승무원상'을 수상한다.

이 상은 이들 잡지가 각각 구독자 및 온라인 설문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최고항공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서비스 부문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담배 '위고' 첫 출시

우리담배㈜는 회사 설립 이후 첫번째 제품인 '위고'(WIGO·사진) 3종을 17일 전국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위고'(WIGO)는 하드팩 형태의 레귤러형(84mm) 담배로, 타르 함유량에 따라 '위고 와인'(5.5mg), '위고 블루'(3mg), '위고 원'(1mg) 등 3종류가 출시된다. 가격은 갑당 2천500원이며, 흡연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최첨단 DNA 필터를 장착했다.

/연합뉴스

설 차례상 비용 12만7천원

올해 과일과 견과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소폭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물가협회는 서울시내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례용품 22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차례상 준비 비용이 평균 12만7천700원으로 작년의 12만9천700원보다 1.6% 하락했다고 16일 밝혔다.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과일류의 경우 수확량이 늘어난 대신 당도는 떨어지면서 품목당 10-20% 값이 내려갔다. 사과와 배 5개씩과 곶감 10개를 준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2만7천500원으로 작년의 3만2천500원보다 15.4% 내렸다.

견과류도 밤과 대추를 중심으로 수확량이 늘어 밤 1kg와 대추 330g 구입비용이 작년 1만3천원에서 15.4% 하락한 1만1천원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